

부정 의문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분석

김선점* · 권순희**

〈차 례〉

- I. 서론
- II. 연구사와 이론적 배경
 - 1. 연구사
 - 2. 이론적 배경
- III. 부정 의문문 분석
 - 1. 분석의 기준
 - 2. 화자의 태도 분석
- IV. 결론

I.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고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 생활을 통해서 늘 대화를 하며 산다. 대화를 통해 남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남을 설득시키기도 하며,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도 하며,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며,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중요하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질문 화행이다. 왜냐하면 대화는 질문과 대답의 연속체라고 할 만큼 상호

* 전주용흥초등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작용이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대화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언어 행위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정보 요구가 질문의 유일한 기능이 아니며 대화 맥락에 의존하여 여러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Sinclair & Van Gessel, 1990; Freed, 1994; 이원표, 1998; 김정선·장경희, 2004). 이는 기존의 통사론적인 언어학 관점에서 벗어나는 접근이며, 화용론이나 대화 분석론에 근거한 접근이다. 모든 대화가 구성 원칙도 체계도 없는 발화의 혼합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화의 체계와 원리가 숨어 있다. 이 원리를 기술하고 재구성하여 가시화하는 일을 화용론이나 대화분석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화용론이나 대화분석론은 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실제로 응용하고자 하는 데까지 미친다.(박용익, 1998)

일상 대화를 분석하여 대화의 원리를 규명하는 일이나 화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일은 화법 교육을 위한 내용을 설정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 중 질문법, 그 중에서도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의문문을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긍정 의문문에 비해 부정 의문문이 청자의 답변을 통제하는 정도가 크다.

다음 (예1)의 질문은 긍정의문문에 해당하고 (예2)의 질문은 부정의문문에 해당한다. 치아 건강 때문에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엄마에게 7살 아동이 질문하는 유형이다.

(예1) 엄마 초콜릿 먹어도 돼요?

(예2) 엄마 초콜릿 먹으면 안 되지?

(예1)과 (예2)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지 가부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적 의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2)에서 화자는 초콜릿을 먹지 않기

를 엄마가 바라고 있지만 이번에 먹으면 어떨지, 이번만은 허락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입장에서 부정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답변을 해 줄 엄마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화자는 전제하고 있다. (예1)의 질문은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지 가부에 중점을 둔 발화이고, (예2)는 초콜릿을 먹어서는 곤란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콜릿을 먹고 싶은 욕구에 못 이겨 엄마의 허락을 간청하는 의도가 있는 표현이다. 청자인 엄마는 (예2)의 발화를 듣고 초콜릿을 이번만은 허락한다고 답변할 확률이 크다.

다음 (예3)의 경우에 이 사실은 더 확실해진다. 하차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깝거나 정거장 바로 전에 신호등에 걸려서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경우 운전 기사의 허락이 있다면 하차할 수도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3) (버스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
아저씨 여기서 내리면 안 되나요?

(예3)은 버스 정거장이 아니어서 하차하기 어렵다고 화자가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나 운전기사가 허락한다면 개인이 좀더 편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면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발화이다. 이 상황에서 '아저씨 여기서 내려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을 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긍정 의문문보다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미안한 부탁이고 어려운 부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의도에서 (예3)과 같은 부정 의문문의 발화가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미묘한 어감 차이와 정서적인 태도 차이는 말하기 교육을 위한 내용 구성 차원에서 규명하고 연구해야 할 영역이다.

의문문은 무엇인가에 의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부정법이 더해지면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문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

라서 화자의 태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실제 대화 속에서 발화되어지는 의문문 중에서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만을 취하여 분석할 것이다. 예문으로 든 문장은 MBC 방송사 드라마 대본 4회분에서 발췌한 것이며 드라마의 주제는 이 글의 논제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¹⁾

실제 대화를 이용하지 않고 드라마 대본을 자료로 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특성상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이 어느 한 시간을 녹음을 했다고 쉽게,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II. 연구사와 이론적 배경

1. 연구사

언어를 연구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언어가 갖는 형식(음운, 형태, 통사)을 중심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형식론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가 갖는 의미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능론이다.

형식론이 언어가 가진 구조나 규칙을 분석하여 규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기능론은 실제 의사 소통과정에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나 형태에 관심을 둔다. 즉 형식론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인간 개개인이 행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언어는 실제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나 외적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의문문의 특성상 통사적으로 의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의 기능을 수

1)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드라마 대본은 MBC 방송사에서 방영하여 2003년 12월에 종영된 장근수 연출, 현고운 극본의 “1%의 어떤 것”이다.

행하지 못하는 의문문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관계로 먼저 의문법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어학에서는 주로 형식적 입장에서 의문문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의문문'을 설명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생성의 미론적 연구의 영향을 받아 의미론적 입장에서 의문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종결어미 형태를 기준으로 한 의문문의 문장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서정목, 1990: 299-302). 이와 같이 의문문에 대한 연구도 각 시대별 언어 연구의 주된 흐름을 따라 그 경향이 달라졌다. 과거의 대체적인 논의 경향을 세분해 보면, 첫째, 전통 문법에서는 활용 어미 체계의 수립이 주된 관심이었고, 그 가운데 의문 어미가 나열되는 정도로 다루어졌다. 둘째, 구조 기술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의문 문말 형식의 형태소 분석이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형식이 의문 형태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형태소 분석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셋째, 화용론적 의미 연구는 초점과 전체에 따른 응답의 차이와 관련된 의미 해석의 문제, 질문 의문 간접의문 자문 등 의문의 유형, 의문 형식의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 수사 의문의 기능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넷째, 변형 생성 문법적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기저 구조에 의문 문말 형식을 표시할 것인지 변형에 의하여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후기에 오면 'WH-이동'과 관련된 의문사와 문말 설명 의문 형식의 일치와 의문사의 논리 형식부 이동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진다.(서정목, 1990: 291-292 참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문법을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함으로써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문장 종결 어미 형태로 나타난 범주'로 보고 의문문을 의문법을 끝맺는 문장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서정수, 1996: 364-411; 박진영, 2005: 7 참고). 그러나 언어는 실제로 행해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나 외적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연구 지평이 확대된다. 대화분석적 차원에서 의문문을 보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부정법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서정수(1994)에서는 부

정문을 명제의 진위를 바꾸는 일을 하는 요소인 부정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라고 했으며, 부정문의 종류를 기본 부정법, 명령/청유 부정법, 특수 부정법, 접두 부정법, 겹부정법으로 나누고 있다.

박종갑(2001)의 논문에서는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 단형 부정문이 장형 부정문에 비하여 중의적 의미 해석이 제한된다는 인식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그런 편향성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밝혔다.

김선희(2002)에서는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부정 양태 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화자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경우와 중립적·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경우로 나누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지애(2002)에서는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부정극어를 연구하면서 그것의 출현 위치와 수식범위를 통하여 부정극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부정극어를 ‘긍정표현과는 공기하지 못하고 부정문과만 공기하는 극성을 지닌 단어 또는 구’로 한정하였다.

박형우(2003)의 논문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의 변천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미비한 연구인 고대 국어나 중세 국어 시기에 대한 부정문의 연구를 보충하여 전체적인 국어사에서 국어 부정문의 변천 양상을 논하고 있다.

권순희(2004)에서는 부정어가 삽입된 부정적 표현과 부정어가 삽입되지 않은 긍정적 표현 중 어떤 표현이 상거래 말하기에서 효과가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점원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고객이 좀더 편안함을 느끼고 구매 의욕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긍정적인 표현을 썼을 때 상거래의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는 이창덕(1992)의 연구이다. 이창덕은 논문에서 담화상의 질문 행위가 어떤 언어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와 일부의 질문 행위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 질문의 힘을 갖지 못하고 ‘진술, 명령, 청유’ 등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원리를 밝히고자 하

였다. 이상의 연구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법과 부정법에 대한 연구는 각각 논의되고 있으나 부정 의문문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2. 이론적 배경

1) 부정법

(1)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법은 긍정문에 부정사를 넣어 문장의 진위를 바꿔 그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는 서법인데 보통 부사인 ‘아니/안’과 ‘못’을 서술어 앞이나 뒤에 덧붙임으로써 실현된다. 그런데, 부정법으로 만들어진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영역(scope of negation)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그것을 부정문의 중의성(重義性)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의성은 일반적으로 단형보다 장형에서 두드러지는 면을 보인다.(이익섭·채 완, 2003), 그러나 박종갑(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형 부정문의 문장 역시 중의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두 부정문의 형식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정문의 중의성은 문장 속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성분의 수만큼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 하지만 각각의 의미 해석은 서로 다른 화용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갑(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용론적 중의성’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로는 단형 부정문은 중의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형 부정도

2) a. ①개가 ②고양이를 ③죽이지 않았다.

b. ① 고양이를 죽인 것은 개가 아니다.

② 개가 죽인 것은 고양이가 아니다.

③ 개가 고양이에게 한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예(a)에서 부정사인 ‘않았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성분 중 어느 성분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 b의 ①에서 ③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바로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또한 b의 세 가지 의미는 모두 “개가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이 되므로 진리 조건적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휴지와 강세만 더해진다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³⁾

부정문의 중의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의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의 자료가 실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입말이기 때문에 중의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만 자료로 삼아 중의성을 논하는 것과는 달리 다음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전체 상황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서 의미적 중의성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 부정 양태 부사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인 부정 양태 부사는 문장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양태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로서 양태소와 양태 용언, 또는 양태 부사, 양태 형용사 등을 포함한다. 부정 양태 부사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강조하여 부정할 때, 또는 화자의 기준, 의도, 예측과 어긋날 때, 그리고 능력이나 외부의 조건이 원인이 될 때, 이에 대하여 화자가 심리적인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나눌 수 있다. (김선희, 2002).

먼저, 화자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경우는 불가능성, 상반성, 미흡

3) (예) ①나는 ②아침에 ③밥을 안 먹었다.

위의 문장에서도 ①에 강세를 두거나 ① 후에 휴지를 둔다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②, ③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 중의성을 해소하는 조사(는)을 서술어 뒤에 붙여서 쓸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단형 부정에 제한이 있다. 즉 “① 나는 아침에 밥을 안 먹었다. ② 내가 아침에는 밥을 안 먹었다. ③ 내가 아침에 밥은 안 먹었다.”처럼 조사 ‘는’을 사용할 수 있다. 단형 부정이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도 특수 조사 ‘는’의 사용에 기인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박종갑(2001)에서는 단형 부정이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인식적 편향성’에 기인했다고 말한다.

- 4) 김선희(2002)에서는 부정문에만 쓰이는 부사를 부정 양태 부사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지애(2002)에서는 부정 극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지애는 부정의 뜻을 더욱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부정 극어라는 명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함 등의 심리적 태도인데 여기에는 ‘도저히’, ‘도무지’, ‘좀처럼’, ‘통’, ‘별로’, ‘영’, ‘씩’ 등이 속한다. 또 화자의 단언, 확신, 예측하거나 의도한 것과 상반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음, 측은함 등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결코’, ‘절대로’, ‘전혀’, ‘그다지’, ‘딱히’, ‘차마’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부정 양태 부사의 유무를 분석의 기준 중의 하나로 삼아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⁵⁾

2) 의문문

의문은 의심을 가져 물음이라는 뜻인데 대체로 화자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술어의 종결 어미가 의문형으로 끝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볼 때 의문문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수(1994)에서는 의문의 유형을 보통 의문문과 특수 의문문으로 나누고 보통 의문문에는 직접 의문문⁶⁾, 간접 의문문이 있다고 했으며 특수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 서술적 의문문, 명령 의문문, 확인 질문, 반문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이창덕(1992)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문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중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을 질문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화자가 사고 활동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갖게 되는 모름이나 장애가 의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화 상에서 표출해서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를 ‘질문’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질문 행위를 대답 요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5) 실제로 대본을 분석한 결과, 부정 양태 부사는 전체 4회분의 대사 중에서 1회 밖에 나오지 않았다. 즉, 4회의 ‘**영** 가망 없는 거야?’에서 ‘**영**’이 부정 양태 부사로서 출현하였는데, 여기서 ‘**영**’은 위의 분류에 따라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진짜, 정말, 너무’ 등의 부사가 쓰이기도 했는데 이는 부정문에만 쓰이는 부사가 아니며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 양태 부사의 유무를 가지고 화자의 태도를 논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한다.

6) 직접 의문문은 다시 판정이나 가부를 묻는 찬부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 설명, 의문사의 의문문으로 불리기도 하는 내용 의문문으로 나누어진다.

과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여 의문문을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① 이거, 먹어도 되나요?
- ②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 ③ 이거, 먹으면 되지요?
- ④ 이거, 먹으면 안 되지요?
- ⑤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 ⑥ 이거, 먹을 수 없을까요?

위와 같은 의문문은 문말 억양이나 문장 안에서 휴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⁷⁾ 게다가 의문문의 의미가 아니라,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둔다면, 위의 여섯 가지 의문문을 '이 음식을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라는 한 가지 의미로 제한하여 설명할 수 없다.

위의 ②, ④, ⑥번은 각각 ①, ③, ⑤번의 부정의 형태이다. 긍정으로 물었을 경우와 부정으로 물었을 경우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①로 물었을 때는 대부분 정중한 태도만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②로 물으면 억양에 따라서 정중한 태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화자의 불만이나 고집스러운 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즉, '안되나요?'의 억양을 전체적으로 내리면 정중한 태도로 볼 수 있으나, 억양을 높이 올리게 되면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한다면, 나는 불만스러운 것이다.', 또는 '나는 이것을 꼭 먹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문항의 의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법이 적용된 의문문으로 발화하게 되면 긍정문과 같은

7) 예를 들어, 문장 ⑤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는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의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음식은 먹으면 탈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탈이 안 날까요?'라는 음식의 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질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의미라고 해도 문말 억양에 따라서 긍정문과는 다르게 화자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III. 부정 의문문의 분석

1. 분석의 기준

첫 번째 분석 기준은 화자가 묻는 사실에 대한 답을 화자 스스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른 인지적 상태이다. 인지적 상태를 앎, 중립⁸⁾, 모름으로 정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발화자에게 의문이 생기려면, 일단 화자의 인지적 구조 안에서 '모름'이라는 기제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분석 해보니 화자가 알면서도, 또는 확실히 않아도 의문문을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 기준은 화자가 묻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문문을 발화하므로 화자는 청자의 대답을 통하여 그 의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전환이 가능한 서법이다. 가능한 서법에는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을 들 수 있겠다. 전환할 수 없는 의문문은 '불가능'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은 그 구분이 확실했으나 어떤 문장은 다른 서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화의 흐름상 의문문으로 발화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그런 표현은 불가능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기준은 의문문 기능이다. 위의 세 번째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른 서법으로 전환이 되지 못한다면 의문문의 기능은 '질

8) 화자의 인지적 상태에서의 중립이란 '알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은 상태'라고 정한다.

문'이며, 명령문으로 가능한 경우는 '명령', 평서문으로 가능하면 '의견 진술', 청유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권유'로 분류하였다.

위에서 밝힌 의문문 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대본 4회분의 부정 의문문 분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대본 4회분에 나타난 부정 의문문 분석표⁹⁾

	부정문문의 종류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	회자 인지 상태			알고자하는 욕구			전환 가능 사법				회자의 태도 ¹⁰⁾			
			알	중립	모름	있음	중립	없음	불가능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	질문	명령	진술	권유
1 회	'안' 부정문	(1) 그거 너도 좀 엄마 스케 줄에 동참하면 안 될까?		○		○				○				○		
		(2) 안 바빠?		○			○			○				○		
	특수부정문	(3) 정말 없어?			○	○			○				○			
		(4) 작정한 거 아니야?		○			○				○				○	
		(5)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나요?	○				○				○				○	
		(6)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			○				○				○		
2 회	'안' 부정문	(1) 할아버지 안 무서워?		○			○				○				○	
		(2) 아자 안 해?			○	○			○				○			
		(3) 인천 안 내려가?		○			○			○				○		
		(4) 오빠한테 전화 안 해도 될까?			○	○			○				○			
	특수부정문	(5)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	○			○				○			
		(6) 대기 없어?			○	○			○				○			
		(7) 진짜 별일 없는 거지?			○	○			○				○			
		(8) 사기꾼 아니야?			○	○			○				○			
		(9) 약아빠졌다고 하면 어른한테 할 말은 아니지?	○				○			○					○	
		(10)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			○				○					○	

9) 분석 기준은 이창덕(1992)에서의 '순수 질문문의 적절성 조건'을 참고하였다.

3회	'안' 부정문	(1) 인천 갔다 온 거 잘 안됐나?			○	○			○				○			
		(2) 만만치 않아?			○	○			○				○			
		(3) 아버지 선 안보면 안돼요?	○			○				○					○	
		(4) 선생님, 안 가세요?			○	○						○				○
		(5) 안 하겠다면서요?			○	○			○				○			
		(6) 조용하지 않아요?			○	○			○				○			
	특수 부정문	(7)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아니겠지요?		○		○				○					○	
		(8)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요?	○			○				○					○	
		(9) 학교 선생님 아니야?	○				○			○					○	
		(10) 잘못 가르켰다 그럴 거 아니야?	○				○			○					○	
		(11) 내가 못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			○					○	
		(12) 화가 풀리실 거 아니에요?	○				○			○					○	
		(13) 노숙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	○			○				○			
		(14) 처음부터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			○			○					○	

2. 화자의 태도에 따른 의문문 분석

대본의 대사에서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을 찾아 정리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회에는 의문문의 횟수가 별로 나오지 않다가 4회에 가면 그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드라마의 초반에는 인물이 소개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지만 드라마 줄거리가 진행될수록 인물간의 대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못' 부정문이나, '말' 부정문이 사용된 의문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드라마 4회분의 대본에서 모든 부정

- 10) 문장에 초점을 둔 분석에서는 '의문문의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본고에서 화자의 의도나 태도 차원에서 부정 의문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함.

문의 종류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수량적인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고, 더구나 ‘못’ 부정문은 용언의 사용에 제약을 받으며, ‘말’ 부정문은 의문문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안’ 부정문도 대화체이기 때문에 단형 부정이 대부분이었고, 4회 중 장형 부정의 출현 횟수는 전체 21회 중 3회뿐이었다. 그것은 장형 부정이 그만큼 구어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장형 부정이 쓰인 의문문은 단형 부정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용언이 쓰였다. 특히 빈도가 높게 나온 의문문은 ‘없다’, ‘아니다’ 등의 특수 부정이 사용된 의문문이다. ‘아니다’ 의문문은 전체 24회 중에 13회, ‘없다’ 의문문이 9회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대표적인 실제 대사를 예로 들면서 보다 자세히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정법이 적용된 의문문 한 문장만을 가지고 화자의 태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앞뒤의 대사를 함께 덧붙였다.

1) 질문

화자의 인지적 상태가 모름에 해당되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다른 서법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자의 태도가 질문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는 1회분에서 1회, 2회분에서 5회가 나왔으며, 3회분에서는 4회, 4회분에서는 10회가 나왔다. 다음의 예를 보자.

2회 # 18

.....

남1: 사고는 무슨. 너 내가 사고치는 거 봤어? 아무 일도 아니야.

여1: 일년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여2: 진짜 별일 없는 거지?¹¹⁾

남3: 그럼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쳤으면 됐지. 또 사고 치겠어요? 지도 양

11) 연구자가 설명을 위하여 임의로 밑줄을 쳤고, 이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임.

심이 있지.

남1: 야. 내가 무슨 사고를 쳐? 아무 일 없어요

.....

위 대화는 남 1에게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을 다그치는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 2는 남 1에게 정말 별일 없는지를 물으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문문은 종결 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화자가 자기가 내린 판단, 즉 '정말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쪽에 이미 생각이 기울었으며 거기에 청자가 동의하거나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이는 화자가 부정 전제¹²⁾를 가지고 묻은 것이며, 어떻게 보면 그 부정 전제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은 태도를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¹³⁾

다음은 위와 같은 상황의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며 청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말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대화이다.

4회 # 21

.....

여: 이사하세요?

남: 네. 다현 씨 집 근처에, 싸게 나온 집 없어요?

12) 화용론에서 볼 때 전제(presupposition)란 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문장에 사용된 어휘나 구문과 같은 특정 국면에 연결되어 부수적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a. John likes Mary, too.

b. John likes someone other than Mary.

위의 a는 b를 전제한다. 즉 a에서 'too'를 씌으로써 'someone other than Mary'가 추가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화자가 굳이 b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청자는 a를 들으면 b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제'이고 긍정문일 경우에는 긍정 전제, 부정문일 경우에는 부정 전제라고 한다. 전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정희자(1999)의 '담화와 문법'을 참고하기 바람.

13) 이런 질문을 이창덕(1992)은 요구 응답의 내용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화자 판단 재확인 요구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질문'의 경우에 해당되는 의문문을 대화 속에서 분석해 보았다. 예로 든 두 가지 경우 외에 '질문'에 속하는 의문문의 화자의 태도를 <표 2>로 정리해본다.

<표 2> '질문'에 속하는 의문문의 화자의 태도 분석

	의문문	화자의 태도		
		정보를 요구함	사실을 확인함	의견을 비교함
1회	(3)정말 없어?		○	
2회	(2)야자 안 해?		○	
	(4)오빠한테 전화 안해도 될까?	○		
	(5)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	
	(6)대기 없어?	○		
	(8)사기꾼 아니야?		○	
3회	(1)인천 갔다 온 거 잘 안됐니?	○		
	(2)만만치 않아?	○		
	(5)안 하겠다면서요?		○	
	(6)조용하지 않아요?			○
	(13)노숙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
4회	(1)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	
	(2)재인이 뭐라고 안하니?	○		
	(4)정말 기다리면 안 됩니까?		○	
	(5)요새 아이들 말 잘 안 듣지요?		○	
	(6)그것도 안 됩니까?		○	
	(9)안 무서워요?	○		
	(11)영 가망 없는 거야?		○	
	(12)진짜 몰라?		○	
	(14)혹시 선 보시는 거 아니지요?		○	

'질문'에 속하는 의문문이 의문문의 고유한 기능인 정보의 요구나 사실의 확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 중 '질문'에 해당되는 태도는 긍정 의문문에 비하여 의심의

정도가 더 강하고 사실의 확인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2) 명령

기능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문문이 있다. 의문문으로 말하면 명령문으로 이야기 할 때보다 더 완곡한 의미를 나타내며, 자신의 의사를 말하되, 청자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명령’보다는 ‘부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명령문으로 말하는 것은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의문문으로 말하게 되면 청자가 대답을 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과정에서 행동 의지를 갖게 하여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긍정으로 묻지 않고 부정으로 묻게 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이미 부정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며 그걸 알면서도 말하기 때문에 보다 완곡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화자의 인식 상태가 얕이나 중립의 상태에 속하면서 화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중립에 속해야 하고, 다른 서법, 특히 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전체 대사에서 5회 나왔으며, 1회분에서 3회, 2회에서 1회, 4회에서 1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회 # 11 차 안, 거리

남 1: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남 2: 꼭 막혔는데 빨리 갈 수 있나요. 날아갈 수도 없고.

남 1: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요. 책임은 내가 질테니.

.....

위의 대화에서 남 1의 첫 번째 대사는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이다. 그러나, 의문의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빨리 가 주세요.”나 “더 빨리 가세요.”라는 명령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적

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 2는 남 1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 그러나 남 1이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것은 늦었으니까 좀 더 빨리 가달라는 부탁, 또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황적 맥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회 # 23

남 1: 인천 안 내려가? 10개월 채우려면 하루라도 먼저 시작해야 할 걸.

남 2: 왜 할아버지가 물으시니?

남 1: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웃음, 긍정이다.)

.....

위의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인천에 빨리 내려가”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남 2가 인천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행동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의문문 외에 1회분에서 나온 “안 바빠?”는 “얼른 일보러 가라”는 문장으로 해석되며, “너도 좀 엄마 스케줄에 동참하면 안 될까?”는 “너도 좀 엄마 스케줄에 동참해라.”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4회분의 “안 가세요?”는 “빨리 가세요.”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¹⁴⁾

3) 의견 진술

의문문으로 말하였을 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청자가 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거나 화자와 청자 모두 대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된 의문문은 화자의 의견이나 강한 주장의 진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문문으로 의견을 전달하게 되면 앞의 ‘명령’과 같이 평서문으로

14) 위에서 나온 4개의 의문문들은 모두 ‘안’ 부정문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만약 ‘못’ 부정문으로 사용하면 그 명령의 의미가 한 층 더 강압적으로 변하게 된다. 단, 1회분의 “안 바빠?”는 “못 바빠?”로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은 부정사 ‘못’의 특성상 한정된 서술어를 취하기 때문에 ‘바쁘다’ 앞에서는 ‘못’이 쓰일 수 없다.

(예) *나는 못 바쁘다. *못 바빠? /나는 안 바쁘다. 안 바빠?

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중립, 그러나 앞에 더 가까운 중립이어야 하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의문문은 1회분에서 2회, 2회분에서 3회, 3회분에서 8회, 4회분에서 4회가 나왔다. 다음의 예를 보자.

1회 #46

.....

남: 아신다고 인정하신 것 같은데...

여: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나요? 전 미국 대통령도 잘 알아요.

.....

위의 상황에서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나요?”는 청자가 정 말 대통령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묻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모를 일은 만무하다. 곧, 화자는 ‘변호사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을 평서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문으로 말함으로써 더욱 더 화자의 의견은 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고, 대화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3회 # 19

.....

여 1: 아무튼 그런게 있어. 아우, 아버지, 선 안 보면 안돼요?

여 2: 안돼(딱 잘라서 선수쳐서 이야기하는)

남 1: 나한테 물었어. 이 사람아.

.....

이 장면에서 “아버지, 선 안 보면 안돼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선을 보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묻고 있다. 청자는 화자보다 더 나이가 많은, 화자의 부모이다. 그런 청자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어서 화자는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4회 # 48

남 1: 재인이 안 왔네요?

남 2: 웬일이래. 이런 자리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

남 2: 개가 왜 욕심이 없어요? 혹시 딴 궁리하나.

남 1: 딴 궁리 뭐?

.....

위의 대화 속에서 밑줄 친 첫 번째 문장은 “재인이가 안 왔군요.”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더구나 상황으로 볼 때 ‘재인’이라는 인물이 안 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남 1이 ‘재인’이라는 인물의 부재를 알기 위해서 남 2에게 질문을 했을 리는 없다. 만약 “재인이 안 왔네요?”라는 의문문 다음에 남 2가 안 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면 그 의문문은 “재인이 왜 안 왔나요?”라는 또 다른 의문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 2는 남 1이 단순히 ‘재인’이라는 인물이 안 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말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응답을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의문문은 단순한 의견 진술로 해석이 된다.¹⁵⁾

두 번째 문장은 “개는 원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문문이 사용된 것인데, ‘왜’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 문장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묻는 문장의 반대의 의견을 강하게 긍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

15) 이 문장은 “화자의 의견 진술”에 속하는 의문문이 문장의 반대 사실을 긍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즉 “안 왔네요?”의 반대 문장은 “왔네요.”인데 화자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따로 구분을 해야 하지만 결국 화자의 의견 진술이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 속한 것으로 한다.

기 위해서 부정법이 사용된 의문문으로 발화한 문장을 살펴보면 그 문장의 긍정 전제가 화자의 의견이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에서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의문문들을 그 문장의 긍정 전제, 즉 화자의 주장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표 3> '의견 진술'에 속하는 의문문의 분석

	의문문	화자의 의견이나 주장
1회	(4)작정한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해.
2회	(1)할아버지 안 무서워?	너희 할아버지는 무서우신 분이야.
	(9)약아빠졌다고 하면 어른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약아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른한테 할 말이 아니다.
	(10)어머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3회	(7)뭐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아닐 것이다.
	(8)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학교 선생님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다.
	(10)잘못 가르켰다 그럴 거 아니야?	잘못 가르켰다고 할 것이다.
	(11)내가 못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가요?	내가 못 믿는 것은 당연하다.
	(12)화가 풀리실 거 아니에요?	화가 풀리실 것이다.
	(14)처음부터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욕심이 너무 심하다.
4회	(7)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말이 너무 심하다.
	(10)없지요?	없는 것이 분명해요.

4) 권유

권유에 해당되는 예는 다음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4회 # 24

.....

남: 김다현 선생님, 안 가세요?

여: 먼저 가세요. 이 녀석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

위의 대화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같이 가자는 의향을 보이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 경우는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명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부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 의문문, 즉 "가세요?"라고 묻는 것은 함께 가자는 권유의 태도가 아니라, 질문에 속할 것이다.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봐도 그렇다. 밥을 먹고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안 먹을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청자가 밥을 먹지 않을 거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같이 먹자'는 의미인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실제 드라마 대본 4회분에서 부정 의문문을 추출하고 그 의문문을 발화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정의문문으로 화자가 질문을 하고 있을 경우이다. 화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묻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 부정의문문을 다른 서법으로 바꿀 수 없었다. 또한 긍정 의문문에 비하여 사실이나 정보에 대하여 의심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고, 정보의 요구보다 사실의 확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화자가 명령의 태도를 가진 경우이다. 명령문으로 발화했을 때보다 더 완곡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청자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의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명령보다 더 효과적인 발화일 수 있다. 또한 '못'을 사용하면 더 강력한 명령문이 될 수 있다.

셋째, 화자의 의견 진술이나 강한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문장의 반대 사실을 의견으로 내놓거나 강하게 긍정하기 위하

여 의문문을 사용하였다. 즉 ‘-아니예요?’라는 문말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문말 어미의 앞부분에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다.

넷째, 화자가 권유의 태도를 가진 경우이다. 권유는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지시를 하는 ‘명령’과는 다르다. 권유는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같이 하자는 의향을 나타낸다. 흔히 “안 먹을래요?”나, “안 갈래요?”는 “같이 먹어요.”나 “같이 가요.”라는 말로 다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대화는 대화 참가자간의 협동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바람직한 상호작용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너, 밥 먹었니”라고 물으면 대부분 “네, 먹었습니다.”나, “아니오. 안 먹었습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할 것이다. 즉, 대화 참가자가 그 대화를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며 그것은 곧 대화 참가자가 대화의 흐름에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대화에서는 대화 참가자들이 상대방이 말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말한 정보 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상황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한다. 이를 ‘추론의 원리’라고 한다.

대화 속에 내재된 대화 참가자들 간의 협동의 원리나 추론의 원리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대화는 무척 정형화되고 딱딱하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밥을 먹어라”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밥 안 먹을래?” 또는 “밥 먹었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꼭 “밥을 먹어라”라고만 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부정 의문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심코 쓰는 문장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규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05. 10. 20. 투고되었으며, 2005.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곽진영(2005), 질문하기 교수·학습 연구-정보탐색을 위한 질문하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희(2003), “부정과 긍정 표현의 말하기 효과 -상거래 말하기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31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권순희(2004), 국어학과 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김선희(2002), “부정양태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한글 제 256호, 한글학회.
- 김정선·장경희(2004), “초등학생 대화에서 관찰되는 질문의 기능과 발달 양상”,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 박소윤(2000), 담화상의 간접화행 분석,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정아(2000), 한국어 대면 대화 분석 연구 - 대화구조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갑(2001),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2) - 중의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인식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 어문학 통권 제 74호, 한국어문화회.
- 박형우(2003), 한국어 부정문의 변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정목(1990), “의문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 나무.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원표(1998), “한보청문회에서의 질문 분석”, 사회언어학 6-1, 사회언어학회.
- 이익섭, 채완(2003),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애(2002), 국어 부정 국어 연구 - 형태론적 유형과 공기제약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덕(1992), 질문 행위의 언어적 실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희자(1999), 담화와 문법, 한신문화사.
- Freed, A.F.(1994), “The form and function of questions in informal dyadic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21. pp923-944.
- Sinclair, A., and Gessel, V.R.(1990), “The form and function of questions in children’s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14. pp621-644.
- 〈분석 자료〉 2003년 MBC 드라마 “1%의 어떤 것” 1~4회 대본

〈초록〉

부정 의문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분석

김선경 · 권순희

실제 드라마 대본 4회분에서 부정 의문문을 추출하고 그 의문문을 발화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정의문문으로 화자가 질문을 하고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화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경우이며, 부정의문문을 다른 서법으로 바꿀 수 없었다. 또한 긍정 의문문에 비하여 사실이나 정보에 대하여 의심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고, 정보의 요구보다 사실의 확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화자가 명령의 태도를 가진 경우이다. 부정의문문을 사용하면 명령문으로 발화했을 때보다 더 완곡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청자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청자의 의지가 스스로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명령보다 더 효과적인 발화이다. 또 '못'을 사용하면 더 강력한 명령문이 될 수 있다.

셋째, 부정의문문으로 화자의 의견 진술이나 강한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문장의 반대 사실을 의견으로 내놓거나 강하게 긍정하기 위하여 의문문을 사용하였다. 즉 '-아니예요?'라는 문말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문말 어미의 앞부분에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다.

넷째, 화자가 권유의 태도를 가진 경우이다. 권유는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지시를 하는 '명령'과는 다르다. 권유는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같이 하자는 의향을 나타낸다.

대화는 대화 참가자간의 협동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바람직한 상호작용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화 참가자가 그 대화를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며 그것은 곧 대화 참가자가 대화의 흐름에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대화에서는 대화 참가자들이 상대방이 말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말하지 않는다. 대화 속에서 추론의 원리가 전제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한 정보 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상황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답을 하

고 질문을 하게 마련이다.

【핵심어】 부정 의문문, 화자의 태도, 기능론, 대화 분석

〈Abstract〉

Analysis of Speaker's Attitude in the Negative Question

Kim, Sun-kyum · Kwon, Soon-hee

Speaker's attitude in the negative questions was analyzed using four drama scripts. Speakers's attitude can be defined as four kinds of stereotypes.

Firstly, speakers use negative questions to know about something. Speakers ask listeners information. In this type, the negative questions can not be paraphrased to other sentences. Comparing with positive questions, these include more doubts about facts and informations. Confirmatory questions are more frequent than informative questions in negative questions.

Secondly, speakers show attitudes of order using negative questions. Negative question can be more polite than imperative sentence when speaker makes an order. Negative question using "MOT" can become a more powerful imperative sentence.

Thirdly, speakers can insist their opinion using negative questions. Speakers use negative questions to suggest opposite facts about their statements or to affirm the facts.

Fourthly, speakers persuade listeners using negative questions. Persuasion is different from order. Persuasion discloses speaker's interactional intention to listener.

In order to be an excellent conversation, it should be based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It should be based on the inference principle, too.

【Key words】 Negative Question, Speaker's Attitude, Functionalism, Conversational Analysis